

한국 SF 서사와 문화사회학*

- 근대를 위한 서사에서 탈근대의 서사로 -

이 지 용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국문초록

근대 과학기술과 함께 태동한 장르인 SF는 구한말 한국에 서구화의 상징으로 인식했던 과학기술의 계몽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SF는 단지 장르로서 서사적인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현상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SF의 서사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보는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의해서 변화해온 문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인식의 변곡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한국 SF 서사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구한말 도입기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계몽의 도구로 작용하던 것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확장되거나 변화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과학지식과 학습을 위한 교보제나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하는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또한 과학에 대한 인식의 지체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현상의 영향으로 장르 특유의 다양한 시도들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SF 서사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것이 일상화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가능성을 부여받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오히려 한국이 근대 이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견지하면서 전위적인 문화예술 장르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SF 서사들에 대한 의미작용의 개진은 한국의 문화의 지향점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 SF, 서사, 문화사회학, 근대, 탈근대, 프로파간다, 사고실험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SF 서사의 상상력과 공동체의 미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들어가며

SF(Science Fiction)는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태동한 장르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언제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에 크게 영향”¹⁾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SF는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이야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들은 SF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윌리엄 윌슨(William Wilson)의 저서 “A Little Earnest Book upon a Great Old Subject”(1851)에서 SF에 대해 “과학으로 인해 드러난 진리들이 본래 시적이고 진실한, 즐거운 이야기와 서로 얽히고설킨 것”이라고 정의한 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²⁾ 이는 근대 과학기술이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의 변화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환경의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생활양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야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으로 인해 드러난 진리’라는 정의는 SF가 이전까지와는 다른 인지 방식의 탄생과 그를 통해 새롭게 구축된 통찰력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SF를 정의할 때, 근대과학의 등장과 함께 발생한 새로운 상상력과 이를 구현한 장르라는 정의를 상정하는 것은 SF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들은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과학적인 혹은 과학적 상상력이라는 언표의 범위를 느슨하게 가지고 가면 장르의 외연이 무한대로 넓어지게 되는 데, 이는 오히려 장르 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SF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서사인 유토피아를 정의하기 위해 플라톤(Platon)으로부터 시작되어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Utopia)』(1516)에서 구현된 유토피아적 요소들을 포괄하면서 장

1) 로버트 스클즈·에릭 라프킨, 김정수·박오복 역, 『SF의 이해』, 평민사, 1993, 17쪽.

2) William Wilson, *A Little Earnest Book Upon A Great Old Subject*, Darton and Co., holborn hill (London), 1851, pp.138-139. (“Now this especially to Science-Fiction, in which the revealed truths of Science may be given, interwoven with a pleasing story which may itself be poetical and true.”)

르의 형태를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설정들은 장르가 생성되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접 영역들을 포섭하면서 나타난 것들이지 장르를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다.

SF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근대과학의 등장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와 방향으로 생활을 변화시킨 “과학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³⁾를 사고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정의를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SF를 연구해온 이들은 SF의 시작을 이러한 정의들을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작품인 메리 셸리(Mary Shell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1818)로 보고 있다. 과학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개연성(plausibility)’을 가지고, ‘있는 법한 속성(verisimilitude)’을 지닌 서사여야 SF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SF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개연성은 장르로서의 판타지(fantasy)와 SF를 장르적으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르적인 정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서구를 중심으로 태동하고 발생하여, 사회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나라는 우선 SF의 장르적 정립이 이루어진 미국과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공유하고 있는 권역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의미를 중시하면서 사회구조 전반의 변혁을 주도하는 기재로 인식했던 사회주의 권역의 동구권 국가들의 SF도 그 결이 조금 다를 뿐,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해 근대라는 개념을 이식받았던 동아시아에서는 SF가 다소 특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른바 근대로 진입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게는 서구와 같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한 과학(科學)을 계몽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3)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137쪽.

2. 근대로의 진입을 위한 계몽 도구

SF를 서구의 과학을 이해하고 계몽하려는 도구의 형태로 받아들인 것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SF를 받아들였던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이미 SF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공헌을 한 쥘 베른(Jule Verne)의 작품들을 1880년부터 번역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저 2만 리(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1869)를 시작으로, 같은 해에 지구에서 달까지(De la Terre a la Lune)』(1867)를 번역하면서 1896년까지 10편의 쥘 베른 작품을 번역했다.⁴⁾ 일본이 이렇게 쥘 베른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번역했던 것은 서구의 발달 된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메이지유신 이후로 일본이 내세우던 탈아입구(脱亜入欧)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중국의 경우 1903년에 쥘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를 루쉰(魯迅)이 번역하면서 SF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⁵⁾ 이와 함께 다양한 문필가들과 계몽사상가들이 SF 번역에 관심을 기울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쥘 베른의 소설들이 1900년부터 1905년 사이에 9편이나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 민족주의적이고 애국(愛國)을 중심으로 하는 부국강병(富國強兵)에 대한 열망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계몽하려고 하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의 내용을 변형시켜 번안한 작품들이 많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⁶⁾

이와 같이 일본과 중국이 서구의 발달한 문명에 대한 핵심이라고 파악했던 과학기술을 계몽하기 위해 SF를 받아들였던 형태를 양쪽에서 동시에 받

4) 김종욱, 「쥘 베른 소설의 한국 수용과정 연구」, 『한국문화논총』 제49집, 한국문화회, 2008, 59-60쪽.

5) 루쉰은 SF 소설을 병든 중국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인식했고, 이를 위해 당시 중국에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과학(Science)에 대한 계몽의 수단으로 SF 소설들을 직접 번역해 소개했다. (송원찬, 「중국고전소설의 SF적 해석 가능성에 대하여」, 『중국소설논총』 30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168쪽 참조.)

6) 고장원, 『중국과 일본에서 SF 소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부크크, 2017, 45쪽 참조.

아 시작된 것이 한국의 SF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SF는 1907년 당시 일본 유학생들이 발간했던 잡지 《태극학보(太極學報)》에 쥘 베른의 『해저 2만리』를 번안해 「해저여행기담(海底旅行奇譚)」으로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잡지를 만든 일본 유학생들은 잡지의 발간 목적이 일본에 있는 동포들과 한국에 있는 국민들의 지식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구한말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의 계몽과 지식의 전달 도구로 소설을 활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아니었다. 구한말 한반도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넌픽션에 순치될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아 왔고 또 그만큼 그에 익숙한”⁷⁾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소설을 계몽의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하려 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체계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구한말 한반도가 근대화를 이룩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고자 했던 열망들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들은 일본 유학생들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시도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은 애국 계몽 운동을 하던 이해조가 번안한 『철세계(鐵世界)』(1908)라고 할 수 있다.

『철세계』는 쥘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egum)』(1879)을 번안한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당시의 사회적인 필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와 의료가 발달한 ‘프랑스빌’에 관련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기계공업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발달한 ‘슈틸슈타트’의 부분만을 번안한 것이 특징적이다. 애당초 쥘 베른이 『인도 왕비의 유산』에서 슈틸슈타트를 그린 것은 기계문명에 대한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1870년에 있었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기계문명으로 대변되는 전체주의와 전쟁에 대한 부조리함을 드러내기 위한 알레고리로 설정한 세계였다. 하지만 이해조는 그러한 비판의 논조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과학의 발달로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 구축된 이상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⁸⁾

7) 조남현, 『소설원론(小說原論)』, 고려원, 1982, 30쪽.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쥘 베른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

이후에 소개된 작품 역시 쥘 베른의 작품이었다. 신태악이 『지구에서 달까지』와 『달나라 탐험(Autour de la Lune)』(1869)을 『월세계여행(月世界旅行)』(1924)라는 제목으로 번안한 것이었다.⁹⁾ 두 작품 모두 쥘 베른의 유쾌한 상상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흥미로운 지점은 번안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두 작품 중 특히 원작인 『달나라 탐험』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농담을 주고받거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조루즈 멜리아스는 영화화 과정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영상으로 구현했다. 하지만 신태악의 번안본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성과 지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번안의 변화 기초 역시, 문학으로서나 과학적 상상력에 대한 담론을 내포한 SF라는 장르 서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서구의 문명에 대한 계몽을 위한 기재로서 SF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한말 한반도에 소개되었던 SF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1920년대 이전까지는 확실히 동아시아권에서 쥘 베른의 소설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쥘 베른과 함께 활발한 작품활동을 했던 웰즈(H.G Wells)의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늦게 소개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SF를 인식했던 특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쥘 베른의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의 변화 양태와 그것을 구현하는 다양한 오브제(objet)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

적 어조 때문에 이해조의 『철세계』는 1910년대에 일제로부터 금서(禁書)로 지정된다. 이는 구한말의 SF가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 어조에 대해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해당 텍스트들은 먼저 받아들이고 이미 비평의 영역에서의 담론화를 마쳤던 일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9) 해당 작품은 그동안 원본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가, 2018년에 원본이 발굴되었다. 자료의 발굴과정에서 기존에 신일용으로 알려졌던 번역자가 신태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정보의 오류가 정정되었고, 『지구에서 달까지』 한 편의 번역이나 번안으로 알려져 있던 것이 사실은 『지구에서 달까지』와 『달나라 탐험』 두 권의 번안본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강부원, 「쥘 베른 소설 <월세계여행> 번역본 발굴과 그 의미」, 『근대서지』 제17호, 근대서지학회, 2018, 77-98쪽.)

- 10) 위의 글, 86-87쪽 참조.

대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교양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동아시아권에서 웰즈가 다루고 있는 ‘타임머신(Time Machine)’이나 ‘우주 전쟁(Space War)’과 같은 주제들보다는 쥘 베른이 다루고 있는 세계여행이나 바닷속의 탐험, 그리고 지하세계로의 여행과 같은 것들이 좀 더 수용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쥘 베른은 그러한 미지의 영역들로 이동할 때 잠수함이라든가 기구, 혹은 로켓과 같은 구체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상상력을 구사했고, 이는 근대과학기술이 구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이와 같은 형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구한말 다양한 지식인들이 SF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서구의 발달 된 문화였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1920년대까지 ‘과학=문명’이라는 도식을 유지한 채 서구의 문명을 알기 위해 과학을 습득하려는 유학생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²⁾ 게다가 『해저2만리』를 그저 ‘기담’으로 표기하거나 하는 방식의 이해는 20세기 초에 기존의 경이문학과와의 거리감을 형성하면서 SF의 장르적 특성을 확립해 가던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SF는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도입된 서사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서구의 과학소설이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동양의 초기 과학소설에서는 계몽성이 강조”¹³⁾되었다는 그 당시의 동아시아권의 기류를 그대로 공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1) 실제 쥘 베른은 미래에 있어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예언적 소설들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해저2만리』에서 등장한 ‘노틸러스(Nautilus)호’ 이후 잠수함의 원형이 되었고, 이와 같은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자국에서 최초로 건조한 핵잠수함에 동일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달까지』에서 나오는 대표 형태의 로켓은 이후 조르주 멜리아스(Georges Molières)가 쥘 베른의 소설의 영향을 받아 만든 영화 <달나라 여행(Le Voyage dans la Lune)>(1902)에서 구체화하고 이후에 로켓 디자인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호, 한국현대문학회, 2005, 144-146쪽 참조.

13) 조남현, 앞의 책, 21쪽.

3. 프로파간다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서사

서구화를 위한 동아시아의 SF에 대한 인식들은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변화에 직면한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제국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일본의 경우엔 SF 소설이 그러한 변화를 옹호하고, 그에 걸맞는 대중적인 행위 기제들을 계몽하는데 충실한 텍스트로 변모하게 된다. 일본 S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운노 주자(海野十三)¹⁴⁾가 2차 세계대전이 개전하기 전까지 군사와 전쟁소설을 썼던 것은 이러한 배경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일본은 원자폭탄으로 대변되는 과학 기술의 위력과 공포로 인해 형성된 사회적인 관심과 성찰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부응하는 형태의 하나로 SF가 발전하게 되면서 19세기에 말엽에서 20세기 초에 동아시아권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서구의 문명을 알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의 SF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로 진입하면서 맞이한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의 성립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의 일본 SF가 미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면, 중국은 소비에트 연합의 과학환상소설(Научная фантастика)의 영향을 받아 계몽을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로의 미학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에트의 SF는 사회주의 이상향을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유용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고,

14) 운노 주자는 필명이이고, 본명은 사노 쇼이치(佐野 昌一)이다. 미국 SF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일본 SF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받는다. 1928년에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요코미조 세이시(横溝 正史)의 추천을 받고 《신청년(新青年)》에 발표했던 「전기욕조살인사건(電気風呂の怪死事件)」이 그의 데뷔작이었다. 추리소설과 SF, 전쟁소설과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제의 군국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르포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의 SF 작품들은 특히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훗날 ‘일본 SF 작가 클럽’의 초대 회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 <철완 아톰(鐵腕アトム)>의 데즈카 오사무(手塚 治虫)와 <은하철도999(銀河鐵道999)>로 유명한 마쓰모토 레이지(松本 零士)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쓰모토 레이지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우주전함 야마토(宇宙戰艦ヤマト)>에서 야마토호의 선장인 오키타 주자(沖田 十三)의 이름을 운노 주자에서 따왔다고 밝힌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SF 작품 중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화성병단(火星兵団)』(1941)의 경우엔 한국에서 원작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은 채 김복순이 『화성마』(1954)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1960년대 문화혁명 이후로는 유지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SF는 문화혁명 이후로 21세기에 대대적인 문호개방과 변혁을 이루기 까지 길고 긴 암흑기에 들어가게 된다.

동아시아권의 SF가 보여준 변화의 양상들은 20세기 초엽부터 시작된 이데올로기 논쟁과 그로부터 촉발된 냉전의 영향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효용성을 인정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SF를 받아들였던 초창기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SF를 과학기술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유용했던 것은 KAPF 활동을 했던 박영희에 의해 변안되어 소개된 「인조노동자(人造勞動者)」(1925)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노동자」는 로봇(robot)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Karel Čapek)의 희곡인 『로섬의 유니버설 로봇(Rossum's Universal Robot)』(1920, 이하 R.U.R)을 변안한 것이다. 박영희는 이 작품을 《개벽(開闢)》지를 통해 소개했는데, 당시에 차페크의 『R.U.R』은 체코 프라하에서의 초연 이후 뉴욕에서 184회의 연속 공연 기록을 세우고, 일본에까지 넘어와 공연될 정도로 쟁점이 되었던 작품이었다. 일본 스키치 소극장(築地小劇場)에서 공연되었던 『R.U.R』을 관람하고 남긴 감상평이 존재할 정도로 구한말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었다.¹⁵⁾ 하지만 박영희는 이 작품을 철저하게 프롤레타리아들의 계몽을 위한 서사로 인식하고 소개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우선 제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박영희는 「인조노동자」를 번역할 때 차페크의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뉴욕과 런던에 오른 극본을 대조해 번역한 스즈키 젠타로(鈴木善太郎)의 「로봇(ロボット)」(1924)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영희는 로봇이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노동자라는 언표를 유용했는데,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⁶⁾ 이는 1925년 8월 1일자 《조선일보》에

15) 극작가 이우진과 이광수가 『R.U.R』에 대한 언급을 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기계적 문명에 노예가 되며 마침내 멸망하는 날을 묘사한 심각한 풍자극”이라고 평을 해 놓은 이광수의 기록이 인상적이다. (이광수, 「인조인(人造人) 보헤미아 작가의 극」, 《동명》 31호, 1923.4.)

16)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박영희가 로봇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

박영희가 기고한 “문단의 투쟁적 가치”라는 제목의 평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론의 내용을 보면 박영희는 <인조노동자>를 통해 무권계급과 유권계급의 차이에서 나타난 부조리를 지적하고 이를 꺾파하기 위한 민중들의 계몽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영희가 보여주었던 SF의 유용방식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의 특징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쟁 이후의 한국 SF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프로파간다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계몽의 도구, 혹은 교육의 도구로 효용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생산과 소비의 기반들이 소실되어 있던 한국이 선택하게 된 어쩔 수 없는 형태였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SF는 전쟁 이후 철저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장르로 인식되었는데, 1962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린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서사에 대한 인식은 구한말 과학이라는 개념을 계몽하기 위해 SF를 받아들였던 것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1976년에 아이디어 회관에서 발행한 ‘세계SF명작’(전60권) 시리즈의 서두에 실린 당시 과학기술처 장관의 발간 격려사는 한국 SF가 당시에 위치했던 의미작용의 지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¹⁷⁾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국 근대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과학하는 마음은 청소년 시절부터 기르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다

해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제목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는 《개벽》 연재 서문에서 “‘로봇’은 ‘노동자’ 혹은 ‘무인노동자’란 말이며 또 막코안氏는 ‘기계’가 만들어서 생명을 주는 노동자’라고 해석한다. 이 말은 보헤미언語다.”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로봇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과학기술에 의한 새로운 객체의 등장 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에 맞게 제목을 수정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17) 해당 시리즈에는 휴고 건스백과 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C. 클라크를 비롯한 대표적인 SF 작가들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SF작가클럽’의 회원이었던 서광운, 강민, 김학수 등의 작품들도 10여 편 실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서광운을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전에 『한국과학소설 전집』에 실렸던 작품들을 그대로 실은 것이었다.

행히 우리나라에도 과학소설(SF) 작가협회가 있어 청소년들에게 과학하는 마음을 재미있게 일깨워주는 작품(作品)을 엮어 계속 출간한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의 산 과학교재로서 널리 읽혀 우리나라의 과학목표 달성에 이바지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¹⁸⁾

격려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SF의 효용은 ‘하나의 산 과학교재’인 것이다. 물론 SF가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교육적 효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독자수용 형태를 존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의 과학적 관심이 ‘나라의 과학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 중반이라면 미국에서는 이미 SF가 근대자연과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문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을 섭렵하면서 외연을 확장한 뒤였고, 영상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변화하면서 현대사회에 대한 폭넓은 통찰과 성찰의 메시지들을 제공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학기술이 그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자들에게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효용 가치로 SF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하나의 인식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정된 인식 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양성을 견지하지 못한 채 협소하고 납작한 의미만을 전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다.

4. 국가주의와 분단이라는 상황

아동·청소년을 교육하여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구로의 정체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SF는 20세기 말에 이르면서 새로운 의미 획득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환상이라는 SF가 가지고 있

18)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 격려사」, 『세계SF명작』, 아이디어회관, 1976. (해당 격려사는 1975년에 발간된 『한국과학소설(SF)전집』에 먼저 실렸고, 아이디어회관의 전집에도 그대로 실려있다.)

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교육적이거나 과학에 대한 정보전달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나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필요에 대한 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소설의 허구화 작업이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축조하는 일”¹⁹⁾이라고 보았을 때 극복하기 쉬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SF 서사를 형성하는 데 유독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SF 작가이자 교수인 고드 셀러가 내린 진단은 흥미롭다. 그는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역 영어 신문에 한국의 문학에 대한 글을 기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주제들, 즉 연애, 일, 현실 정치, 최근의 역사를 다루는 젊은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이 남한의 작가라면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그리고 마땅히 천착해야 할) 적절한 주제로 글을 쓰는 데 실패했다고 통렬히 비난하는 기성 작가들 간의 긴장”²⁰⁾을 특징으로 규정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가 지적한 적절한 주제는 ‘기억의 상실, 갈라진 가족들과 그 가족들의 재융합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통일, 전통적인 고향으로의 회귀, 가족, 직장, 공동체에서의 알 수 없는 실종과 같은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주제들의 탄생 배경은 부분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이후의 독재정권(그리고 일제 패망 이후 교육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동원되었던 지식인들)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다.²¹⁾

그리고 그가 지적한 기초들은 한국에서 SF가 다양한 소재나 미래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공상(空想)이라는 스테레오 타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들에 천착하는 방향으로의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 측면에서도 동일한 행위와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965년에 문운성의 『완전사회』와 같은 획기적인 사고실험이 진행

19) 구광본, 「판타지와 SF - 환상문학으로서의 가능성」, 『Happy SF』 창간호, 행복한책읽기, 2004, 32쪽.

20) 고드 셀러, 홍인수 역, 「한국 SF의 현재」, 『미래경』 제2호, SF&판타지도서관, 2009, 112쪽.

21) 위의 글, 112-113쪽 참조.

된 작품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지도 못하고, 장르적인 담론을 쌓지도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야 했던 것이다. 대신 19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SF가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드 셀러가 지적한 적절한 주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국가라는 개념과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한 사고실험을 수행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제한된 사고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복거일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복거일은 『비명을 찾아서』(1987)를 통해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이다. 이 작품이 한국 SF 서사에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작품이 SF라고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작품을 SF로 규정하거나, 장르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주지한 경우가 없었다. 물론 작품을 창작하면서 자신의 창작 의도를 명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SF가 한국에서 장르적이고 예술적인 미학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도구로의 필요에 의해서만 활용되었던 전례들을 볼 때, 복거일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SF가 한국에서 문화예술로서의 독립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객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지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복거일은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작품인 『비명을 찾아서』가 SF의 하위장르인 대체역사소설(Alternative History Fiction)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해당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관해 설명한다.²²⁾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SF가 이전까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었다고 낙관할 수 없는 것은 대체역사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이다. 대체역사소설은 시간여행에서 파생된 장르로서 역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기록된 것과 다르게 작용했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한 사고실험을 진행하는 이야기 방식이다.

대체역사는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를 위해 존재하고, 그것이 역사적인 맥락과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메시지 내에서 주제를 형상화한다. 『비명을 찾아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역사적 사실의 가정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사회적인 모순들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는 부조리들이 만연한 1980년대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적절한 주제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에 속하는 부분이다. 특히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22) 복거일, 『비명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87, 10쪽 참조.

같이 글과 말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접근은 당시 한국에서 의미를 획득하기 용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장르에 대한 선언이 있었음에도 대중들이나 문화적인 인식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요원한 것이었다.

북거일은 이후로도 이와 같은 주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한다. 『역사속의 나그네』(1991)와 『파란 달 아래서』(1992)가 그것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분단 상황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활용한 작품들이다. 그중에서도 『파란 달 아래』는 달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과 그 안에서 북반부라고 불리는 북한의 요리사를 화자로 내세워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작가는 알레고리를 확보하고, 이야기 속 이차세계에 대한 서술을 통해 현실의 일차세계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게 된다. 하지만 『파란 달 아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판은 분단 상황에서 특정한 체제의 우월함이나 상대방 체제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데 의미를 할애하느라 정작 흥미로운 설정에 비해 협소한 주제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없는 타자화된 개체들을 중심인물로 상정하고, 편집성의 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여 알 수 없는 이물감을 형성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 시기에 나왔던 대체역사소설이나 가상역사 소설들이 북거일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통일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결과적으로는 남한 체제의 우수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창작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주제’에 대한 강박이 존재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창작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용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게 강박적으로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 역시 SF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전유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SF는 “과거와 미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투영됨으로써 실제 세계 사람들에게 미친 변화의 결과를 다루는 문학”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에 국한되는 관심사를 뛰어넘는 큰 규모의 이슈를 다룬다”²³⁾는 특징을 지니지만 이 시기까지의 한국 SF 서사는 이러한 형태를 견지하기 어려웠다.

23) Jame Gunn, *The Science of Science Fiction Writing*, The Scarecrow Press, 2000, pp.73-80 참조.

결국 한국의 SF는 과학을 도구로 여기던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시민이나 확장된 세계에 대한 관념들을 견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후로 20세기 말엽까지도 거대담론의 헤게모니와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함몰되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주제들을 구현하는 데 그치게 된다. 이러한 한계들이 변화의 조짐들을 마주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위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일대 변혁을 맞이하면서였다. 바로 첨단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등장한 PC(Personal Computer)와 이를 토대로 구축된 새로운 공간, PC 통신이라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등장이었다.

5. 탈근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고실험

한국 SF 서사는 1990년대 PC 통신의 등장과 함께 일대 변혁을 맞이한다. 그전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다채로운 시도들과 다양한 형태의 의미작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복거일도 『파란 달 아래』 같은 경우엔 PC 통신을 이용해서 작품을 연재하고 완결이 난 이후에 이를 묶어 출간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국 SF 작가 중에서 PC 통신을 통해 작품을 발표한 첫 번째 작가는 이성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아틀란티스 광시곡』(1991), 『우먼 Q』(1991), 『바이러스 임진왜란』(1992), 『스핑크스의 저주』(1993)와 같은 작품들을 PC 통신을 통해 연재하고 이후에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그의 작품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공학을 소재로 활용한 SF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주제와 소재의 확장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했다.

PC 통신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PC 통신은 검열이나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용자들의 필요와 욕구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field)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그전까지 한국 사회가 의식해야 했던 ‘적절한 주제’에 대한 문제들을 부차적인 것들로 여길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SF 서사가 개별성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듀나(DJUNA)라고 할 수 있다. 듀나는 1994년 하이텔에 「미세시스」, 「시간을 거슬러 간 나비」, 「시간여행자의 허무한 종말」과 같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듀나는 이전까지의 SF 작품들에 비해 장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층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과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 장르문학으로서의 SF에 대한 명확한 코드와 관습(convention)의 구사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19세기 말엽부터 발달해 온 SF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²⁴⁾ 그러기 때문에 듀나의 작품들은 아동·청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창작한 모험 플롯의 정형화를 따라가지도 않고,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에 대한 경이감이나 정보전달 형식의 해석에 매몰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 듀나는 카오스 이론이나 나비효과, 도플갱어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과학적 요소들이 반영하면서도 SF의 관습적 문법을 충실히 구현한 작품들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장르 끌리셰에서 진화한 돌연변이 적 문화생산물이자 그 진화과정에 대한 알레고리”²⁵⁾로 작용하면서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새로운 의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듀나의 작품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로소 SF에서 공간과 등장인물, 소재에 대한 현지화 작업을 시도한다. 그의 대표 작품인 『대리전』에서는 행성 간 여행을 즐기는 외계인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멘허튼

24) SF는 외부로부터 수용된 문학 장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구 문학이 우리나라에 수용되는 모양을 통해 장르의 의미들을 파악하기도 한다. (백대운, 「한국 문학과 SF - 박민규 소설의 포스트콜로니얼 탈장르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33쪽.) 그리고 이러한 형태에서는 모방적 수용(mimetic reception)이 차용되는데, 특히 장르의 경우에는 “규칙을 넘어선데서 훌륭함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얼마나 장르의 규칙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론이 존재하고, 한국의 SF도 이러한 가치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츠베탕 토도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6, 46쪽.)

25) 복도훈, 「한국의 SF, 장르의 발생과 정치적 무의식: 복거일과 듀나의 SF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36권 제2호, 창작과비평사, 2008, 59쪽.

이나 유럽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부친을 활동무대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SF에서 다루던 외계인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층위들도 변형되는 특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SF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내재화하면서 모방적 수용에서 벗어나 변형적 수용(transformation reception)의 양상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나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친이 무대가 된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지리를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그렇듯 비교적 무개성적이거든요. 언급되는 구체적인 장소들도 현대백화점이나 홈플러스처럼 어디에나 있는 것들이고요.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보다 다른 데에도 있는 것들만 있는 따분한 물개성적인 위성도시가 더 이야기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²⁶⁾

물개성적인 위성도시의 한국의 특징이고 한국이 근대화 이후에 줄곧 지향해왔던 가치들의 실질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공간을 비틀어 우주 연합 소속의 외계인들이 패권 다툼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곳으로 만드는 설정은 SF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두나는 지극히 환상적인 공간들을 현실에 실존하는 공간에 대입시켜 설명을 부여했다. 캐스틴 흄은 환상적인 공간과 배경이 “모험을 규정하고, 주인공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실행할 수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한다.²⁷⁾ SF 서사에서 구현된 환상적 공간을 통해서 수용자들은 익숙했던 공간으로부터의 일탈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탈의 범주는 기존에 가치라고 생각되었던 근대의 유산들을 내포하게 된다. 결국 리얼리즘에 순치되는 가치를 증시해 온 한국의 서사 지형에서 현지화된 SF가 보여주는 세계관의 일탈과 전복은 한국의 근대 이후에 어떠한 형태의 서사들이 탄생 가능한가에 대한 사고실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26) 저자 인터뷰 : 이대 대학원신문 52호

(<http://www.kyosu.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no=10343>)

27) 캐스틴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260쪽.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들은 SF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을 그대로 관통한다. 19세기 이후 SF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로부터 얻어진 SF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현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사고의 실험들에 연루되도록 요구하며, 독자나 관객으로 하여금 지적 반응을 하도록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²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대과학기술의 태동과 함께 변화한 사회를 능동적으로 통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으로 작용하고, 근대 이후의 변화된 사회를 통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재로 작동해 왔다.

SF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나 도나 헤러웨이(Donna Haraway),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itu)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장르의 의미들을 확장해 왔다. 그 중에서도 헤러웨이는 자신의 이론이 SF 작가들과 기묘한 연관 가운데서 형성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²⁹⁾ 그러기 때문에 20세기 후반부터의 SF는 단순히 미래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예언적 제시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다양하게 사고실험을 개진하는 전위적인 서사 방식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1990년대 말부터 나타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관념들에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현되기 시작한 한국 SF의 서사들은 기존의 가치들이 가지고 있던 헤게모니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사고실험들을 내어놓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변혁의 시작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로부터 변화된 생활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SF적인 양태라고 할 수도 있겠다.

28)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12쪽.

29) 위의 책, 29쪽 참조.

6. 나가며

21세기 이후의 한국 SF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2010년도 이후에 이르면 그동안 사이버스페이스와 다양한 팬덤의 형태들로 누적되었던 잠재력들이 비로소 구체화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특히 내재화를 거쳐 탈근대를 위한 다양한 사고실험들을 개진했던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SF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하위장르들의 다양한 주제의식들을 본격적으로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단순한 유행의 흐름 시대를 벗어나 취향과 다양한 욕망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현대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들로 서사를 구축하면서 사회가 은폐한 욕구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유로운 장르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과 연결되어서 그동안 맥락화되지 않았던 다양한 가치들이 발굴되고, 또한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 이러한 서사들이 구축되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SF가 남성들의 문학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1960년대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과 SF는 그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SF가 가지고 있는 사고실험의 방법이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복적 가정들은 페미니즘에서 젠더의 상황을 뒤바꾸어 현상을 통찰하게 하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이나, 젠더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는 전위적인 영역까지를 자유롭게 가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 SF 작품들이 2015년 이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필두로 하는 발달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영역과 관계 맺기의 방식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SF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의미들을 이야기하기에 유용한 장르로 작용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세계적인 한국의 문화적 환경에서 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부차적이거나 부정적이고 지양해야 할 비본질적인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생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한국의 서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직시해 통찰하려는 시도들

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F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생활세계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예견을 꾸준히 해 오면서 그 방법론을 쌓아온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기술에 의해서 모든 변화의 속도들이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그것을 인지하고 해석할 방법론으로서 SF가 재의미화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라는 근대적인 산물의 위에서 탄생해 지금까지 담론을 발전시켜 온 SF의 다양한 방법론들은 우리가 대상을 파악하고, 세계를 인식하면서 마주했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고장원, 『세계과학소설사』, 채륜, 2008.
- 복거일, 『비명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87.
-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6.
-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 격려사」, 『세계SF명작』, 아이디어회관, 1976.
- 로버트 스킨즈·에릭 라프킨, 김정수·박오복 역, 『SF의 이해』, 평민사, 1993.
- 츠베탕 토도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6.
- 캐스린 흠,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 김종욱, 「쥘 베른 소설의 한국 수용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9집, 한국문학회, 2008.
- 구광본, 「판타지와 SF - 환상문학으로서의 가능성」, 『Happy SF』 창간호, 행복한책읽기, 2004.
- 복도훈, 「한국의 SF, 장르의 발생과 정치적 무의식: 복거일과 두나의 SF를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36권 제2호, 창작과비평사, 2008.
- 백대운, 「한국 문학과 SF - 박민규 소설의 포스트콜로니얼 탈장르화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 백지혜, 「1910년대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과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호, 한국현대문학회, 2005.
- 송원찬, 「중국고전소설의 SF적 해석 가능성에 대하여」, 『중국소설논총』 30호,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 고드 셸라, 홍인수 역, 「한국 SF의 현재」, 『미래경』 제2호, SF&판타지도서관, 2009.
- Jame Gunn, *The Science of Science Fiction Writing*, The Scarecrow Press, 2000.
- William Wilson, *A Little Earnest Book Upon A Great Old Subject*, Darton and Co., holborn hill (London), 1851.
- 이광수, 「인조인(人造人) 보헤미아 작가의 극」, 《동명》 31호, 1923.4.
- 이대 대학원신문 52호
(<http://www.kyosu.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yno=10343>)

❖ ABSTRACT

Korean SF Narratives and Cultural Sociology
– From Narratives for Modern Times to
Postmodern Narratives

Lee, Ji-yong

The genre of SF that began with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was introduced for the enlighten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recognized as a symbol of westernization in Korea,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So, Korean SF not has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narratives as a genre, as well as meanings by interacting with social phenomena. Thus,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SF narratives could be a methodology of viewing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in Korea, while also verifying the culture changed by scientific technology, and inflection points of the perception derived from it.

Changes in Korean SF narratives, show different aspects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Working as a tool for the enlighten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is a remarkable characteristic. After that, it was not largely expanded or changed, by going through colony and war. It shows narr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playing a role as propaganda, or training aids for scientific knowledge, and learning for adolescents. Also, due to delayed perception of science and influence of special social phenomenon such as the state of division, diverse attempts of the genre were limited.

However, in the 21st century, owing to influence of rapi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institutionalized scientific technology, Korean SF narratives started showing possibilities different from the past. Sticking to diverse values to move forward after the modern age, Korean narratives are evolving towards becoming an avant-garde culture and arts genre. So, the

statement of the expanded significance of Korean SF narratives will play an integral role in expanding the boundaries of Korean culture in the future.

Key Words : Korean SF, narrative, cultural society, modern times, postmodern, propaganda, thought experiment

■ 논문접수일 : 2019. 05. 10

■ 심사완료일 : 2019. 06. 01

■ 게재확정일 : 2019. 06. 04

